


Print 

Strategic Threat



President Ahmadinejad Photo: AP

 click here to enlarge text

 click here to reduce text

이란: 이스라엘과 미국은 곧 궤멸될 것이다.

아흐마디네자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곧 궤멸될 것이라고 장담
야코브 래핀 (Yaakov Lappin)

이란의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가 화요일, 시리아 외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곧 궤멸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의 국영방송 IRIB(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가 IRIB 웹사이트의 한 보고서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공식 파르스 통신사는 다음과 같은 평도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미국과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이 곧 궤멸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이란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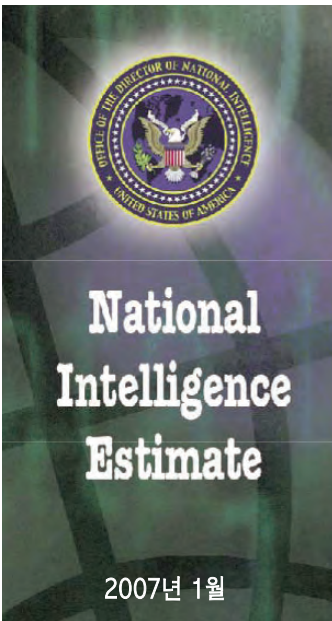
"이슬람교도, 특히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 촉발된 분쟁은 시온주의자들과 미국이 이슬람 나라들을 지배하고 이들의 자원을 약탈하고자 만든 음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런 말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궤멸을 목표로 한 더 광범위한 계획을 위해 레바논에서 직접 여러 행사들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지역 국가들에게 "레바논 사람들의 이슬람적 저항을 지원하고, 물론 곧 멸망할 시온주의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팔레스타인 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는데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최근 몇 달간 수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이 궤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근래에 들어 그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나라 목록에 미국과 영국도 추가되었습니다.

시리아의 외무부 장관, 웨일드 무알렘(Wailed Mualem)은 미국이 "이슬람교도의 대학살"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이슬람교도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IRIB는 웹사이트를 통해 무알렘이 "평화와 평온의 시대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이슬람교도들이 대량 학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이 지역 국가들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의 안정화에 대한 전망: 앞으로의 도전

이라크 주변국의 영향력은 이라크 내부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외부 나라들의 개입이 이라크 내 폭력 사태나 안정화 전망에 대한 주요 원동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라크 내부 종파간 분쟁의 원동력은 자립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이라크 시아파 무장세력에 대한 선택적이며 치명적인 지원은 명백히 이라크 내 분쟁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속적으로 이라크에서 추방당한 바트당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이라크로 들어가는 외국인 지하디스트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 다지 적당해 보이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빠른 철수가 일어났다면, ISF는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라크 주변국들은 이라크 종파들의 도움 요청이나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이러한 분쟁에 공개적으로 개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